

김별아의 '문학과 삶'



여행, 설렘과 그리움의 기억

뽕품 같은 도시를 떠나 백두산에 다녀왔다.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 중 남한 구간인 지리산에서 진부령을 완주한 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트레킹 여행이었다.

백두산의 세 봉우리 남파, 서파, 북파를 모두 오르는 것 외에 연변 지역에 남아있는 항일유적지와 한민족의 자취를 탐사하는 역사문화기행으로 계획되었다.

무니없이 비폐하거나 부족하다. 길을 떠나려거든 눈썹도 빼어 놓고 가라 했거늘, 꼭 필요한 건 빼먹고 너절할 것들만 잔뜩 챙겨왔다.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안도의 신문촌(新屯村)에서 민박한 하룻밤과 연변대학교에서 들은 허명철 교수의 특강은 중국 내 조선민족-조선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큰 배움이었다.

중고칼럼



이재술

“평생 힘들여 독사한 선비가 일사무쌍한 상놈들과 똑같이 취급당하여 포를 바쳐야 하니 억울하겠습니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역사를 씁니다

1864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당시 세입위원장이던 자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누진세법안을 비판한 주장이다.

가리는 기준은 그 정책이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와 방향에 대한 수렴의 정도여야 할 것이다.

기고



박광석

8000만년 전 고요하던 한반도에 화산이 분출되어 빨간 용암이 벌크 벌크 소리를 내며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더욱이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세계 최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학술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번 심포지움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자연유산을 연구하는 국제학회인 '제11회 세계생태대륙성생태학회'를 광주에 유치해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학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에게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편견과 핏줄 따지는 관습 벽 깨고 국내입양 늘려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던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같은 부끄러운 기록이 있다.

기간이 더 늘게 되고, 그래서 정제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보호 아동들이 많아지다가 결국 해외로 입양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시설

불황 늪에 빠진 지역경제 타개책 없는가

광주·전남경제가 좀처럼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 모두 하락세가 심화되고,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 0% 수준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

거액 투자한 유명 화가 전시관 방치라니

예로부터 광주·전남은 한국화단에 큰 족적을 남긴 화가들을 많이 배출했다. 한국 근현대 회화의 거목 고 오지호(1905-1982) 화백도 그렇고, 화려한 색채와 풍물로 독창적인 화풍을 일군 천경자 화백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오지호 기념관이지만 정작 오 화백의 진품은 단 1점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시관 운영의 필수조건인 학예사 등 전문가는 없다.

無等鼓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7년 전인 1975년 8월 17일, 언론인이자 재야 정치인인 장준하 선생이 경기도 포천군 이도면 도령3리 약사봉 계곡 절벽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동안 여러차례 있었다. 2004년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에 나섰지만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장준하와 진실

시신에는 별다른 의상이 없었고, 오른쪽 귀 뒤쪽에 함몰된 상처와 양쪽 겨드랑이에 멍이 든 상태였다.

'장준하공원'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검사를 의뢰한 결과, 두개골에서 5~6cm의 구멍과 골이 간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유진, 노선주 김신용, 편집국장 김재원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이윤미·광주시 서구 양동